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¹⁾

번역 :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본부 국제협력선교부

2022년 (8월 31일~9월 8일까지) 세계교회협의회가 독일 '칼스루헤'에 모여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제11차 총회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요 17:23)하는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하며 세계교회협의회 교제 안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사랑하듯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창조 세계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고 친교를 돈독히 하는 때이다.

1. 우리 모임의 컨텍스트

제11차 총회는 독일 '칼스루헤'에서 열릴 예정이다. 독일은 풍요로운 국가이지만, 코로나19로 다른 모든 국가와 같이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으로 이번 총회가 개최될 때까지 많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 팬데믹은 인류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우리들 안에 깊이 내재된 불평등과 분열상을 여실히 폭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특권층과 억압받는 사람,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과 인종 간의 갈등과 불의라는 추악한 현실에 눈을 뜨게 해 주었다.

이와 같은 경험의 어두운 그늘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여 희망의 빛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타나신 사랑, 곧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사랑을 선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서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사랑이 즐거이 머무는 교회는 이 시대에 어떻게 모여야 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 사랑의 선교를 세상에서 어떻게 감당해 갈 것인가?”

2013년부터 세계 교회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을 공동의 소명으로 선포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순례의 길을 걸으며 함께 했던 모든 일을 되새겨 보고 서로 축하하며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또한, 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사랑, 그리고 모든 인류와 피조물을 향한 사랑 안에서 다음 순례의 여정을 위한 영감을 받을 것이다.

1) 이 문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허락을 받아 전문을 번역하였습니다. 2021년에 출판된 원문은 다음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WCC 주제해설 원문 링크

<https://www.oikoumene.org/resources/publications/christs-love-moves-the-world-to-reconcilation-and-unity-a-reflection-on-the-theme-of-the-11th-assembly-of-the-world-council-of-churches-karlsruhe-2022>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많은 사람이 “정상”으로 간주하던 삶의 방식에 중대한 도전을 주었다. 비극과 죽음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개인주의의 한계, 세계화의 도전(세계화로 인해 바이러스가 빨리 퍼져 나갈 수 있었다), 인간의 상호 책임성(때에 따라 서로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한)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동시에, 전쟁은 많은 비참함과 고통과 죽음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대부분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후의 변화는 이제야 일부 사람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공포가 되었지만, 극빈층의 사람들에게는 이미 재앙과 위협이 되고 있다. 부유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모두 정치 지형의 빠른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민주주의 자체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진부하고 종종 공허한 약속으로 비추어질 뿐이다. 글로벌 차원의 다자간 협이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게다가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마저 잊히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다가올 나라의 표징과 전조로 살아가고, 가장 암울한 때에도 우리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총회는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며 치유하시며 능력을 주시는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의 순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의 소식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함께 담긴 우리는 성령으로 강해지고, 우리 존재와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은 세계 교회의 교제로 다음 여정을 위한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된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그림자 취급받는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등하는 이들에게 화해를, 모든 분열된 이들에게 화합을 가져올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이 …” – 총회 주제의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기초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라는 주제는 복음서의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직접 영감을 받아,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깊이와 경이로움을 세상에 전한다는 뜻을 지닌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서 나타나고 모든 이들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린도교회에 서신을 보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갈릴리 지역의 교사나 자기들만의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신성의 모든 충만함”(골 2:9)이 깃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분이다. 우리와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은 육신이 되셨다. 이 사랑은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떠맡으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며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질서를 만들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4:16)라고 선포하고, 바로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드러났음을 의미한다.

영원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엡 1:22~23)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살며, 그 사랑을 증거하고,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불의와 폭력과 분열의 현장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의와 평화와 일치를 부어 주신다.

어떤 총회든 그 총회의 주제는 교제로 모이는 이들의 울타리를 제공하고, 우리 삶과 여정의 비전을 제시하며, 미래 행보의 방향을 설정한다. 총회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인 코이노니아(Koinonia), 세상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향한 디아코니아(Diakonia), 세상에 대한 사랑의 하나님 선교(Missio Dei), 그리고 말씀을 담아 서로와 세상을 위한 기도(leiturgia)를 새롭게 모색하는 효율적인 길을 열어준다.

2022년 ‘칼스루헤’ 총회 주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로의 사랑으로 이끌리고 있음을 다시 일깨워준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이 한없이 깊어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드러난 것들과 그 사랑으로 주어졌던 것들이 우리를 이끌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은사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은사를 입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도록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말한다.

총회에서 연구하고 다루게 될 복음서와 신약성서 전체의 많은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 처음 증거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마태복음 9장 35~36절이 핵심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드러내고 행하신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 9:35~36)

이 본문이 보여주는 그리스도는 측은지심에 이끌려 “담대하게”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과 치유와 희망을 전한다. 그의 사랑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광야에 몰려든 무리와 모든 성읍과 마을에 모인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다. 이 사랑은 감명을 주는 한 인간존재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신성한 사랑은 넓고 깊으며, 구체적이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준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의 사랑이 상처투성이고 깨어진 세상 속에 드러나며 교회와 세상을 이끈다.

총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와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통해 더욱 새로워지는 기회를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

이 오도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감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이 사랑은 구속적이고 자기 부정적이며 희생적이며, 선을 위한 변화를 가져오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것이다.

3. “...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이 시대의 도전에 응답한다.

세계교회협의회 총회는 전 세계에서 오는 회원 교회들의 교제를 목적으로 하며, 참가자와 총대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울부짖음과 요청이 함께 모아진다.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 우리는 우리 시대의 많은 도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는 길을 모색해 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이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 시대의 삶에서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 증거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일치와 인류와 창조 세계 간의 일치에 중대한 도전이 될까?

1) 코로나19

은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함께 경험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많은 이들이 코로나19로 슬픔에 잠기고, 부서지기 쉬운 허약함에 내몰리며,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 시기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한 파열된 시간으로, 많은 사람들과 지역 사회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겨줬고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절망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겸손함을 배웠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와중에도 서로가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사랑을 표현하고 생생하게 드러내기가 더 어려워진다.

코로나19는 또한 서양 사회에서 그토록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자립 자조, 독립, 개인주의 가치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냈다. 우리 인간은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창조 세계의 일부이고 극히 취약한 존재라는 것이 자명해졌다.

팬데믹은 또한 세계의 많은 불평등 상황을 더 분명하게 드러냈고, 우리 시대의 가장 중대한 도전들에 대한 의식을 고조시켰다. 교회들 역시 예배드리고 성례전을 집례하고 세상에 봉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으며, 때로는 국가권력과의 관계,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일 등에 관한 논쟁을 진행하기도 했다.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울부짖는 소리와 지역 공동체와 민족이 외치는 저항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상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괴롭고 무기력”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 특히 가장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언제나 그러했듯 그리스도는 긍휼을 베푸신다.

2) 기후 변화

우리는 기후가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인간이 한 일 때문에 기후가 변한다.

우리 인간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인간의 지배욕으로 신음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젊은이들이 요즘의 기후 위기에 관해 얘기한다. 에베레스트 정상(쓰레기)에서 바다 밑바닥(플라스틱)까지, 시베리아(기록적인 고온)에서 킬리만자로(“영원한” 눈이 사라지고 있음)와 태평양 섬(많은 곳이 물에 잠길 수 있음)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지구 생체 신호들은 인간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많은 생물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의존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풍요로운 생물다양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우리는 한계를 모르는 삶이 한계를 모르는 파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배웠다.

많은 과학자가 지구는 오늘날 인류세(Anthropocene, 人類世)라고 불리는 지구 역사의 새로운 시기에 있다며, 특히 지난 200년 동안의 산업화 기간에 인간 지배의 영향은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인류는 창조 세계를 돌보는 데 실패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모두의 변화와 회개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미래를 향한 담대한 희망으로 살아간다.

3) 불평등

우리는 세계의 부가 극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글로벌’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이 불평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기만 했다. 일부 지역은 수많은 도전과 함께 전염병에 대처하는 일이 마지막 지푸라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가 경제적 파멸의 낭떠러지에 내몰리기도 했다. 일부 국가와 국민은 국제협약과 국제원조로부터 후퇴하고 “우리부터 살자”는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 세계의 현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등의 “가장자리”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성경의 전통과 상반되게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신실함에 도전하는 것이다. 최근 많은 교회와 에큐메니컬 단체들은 새로운 국제 금융과 새로운 경제 설계를 통해 “생명의 경제”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

우리는 또한 끔찍한 만행들을 목격하기도 했으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M, Black Lives Matter)라고 부르짖는 예언자적인 선포를 접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고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불평등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을 경험하기도 했다.

에큐메니컬 총대주교 바르톨로메오스 1세는 지난 제7차 연례 G20의 종교 간 포럼 대표자들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에서, BLM운동과 관련하여 “무한한 인간의 생명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 그래서, 인간은 시장가치나 교환을 위한 상품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

인간의 존엄성에는 피부색, 성별, 나이, 민족 또는 종교가 따로 없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가치를 지니므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기회를 빌어 모든 형태의 구조적 불평등, 인종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부족주의, 카스트주의 그리고 계급주의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정책

입안자와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의와 모든 형태의 차별 관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4) 디지털 혁명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 혁명은, 이전의 산업 혁명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세상을 낳을 수 있다. 우리가 살고, 말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는, 많은 경계를 넘어 함께 소통하고 일을 가능하게 하여, 직접 만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에는 부응하지만, 결국 인간 이해에 대한 근본적이고 불편한 물음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면 소통이 후퇴하면서 경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소외를 낳는다. 미래에는 인간의 육체적인 한계나 정신적인 한계까지 극복하게 되어 오늘날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 더는 그때의 “인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공 지능, 알고리즘, 기계 학습, 보다 “완벽한” 인간을 만들기 위한 생물학적 연구, 로봇의 개발 및 사용 -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와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할 것이다.

5)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확신의 상실

많은 사람이 정부, 국제 포럼 또는 국제협력에 대한 믿음을 잃었고, 자유의 상실과 인권의 유린을 목격한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필요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세계는 일치보다는 자기중심주의와 분열로, 보편적이고 국제적이기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모든 인류가 하나라기보다는 차별과 개별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다.

사람들 간의 폭력이 난무하고, 땅을 잃고 난민이 되거나 박해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갖은 폭력에 시달리며,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취약성과 불안과 공포에 신음하고 있어 전 세계가 고통으로 울부짖고 있다. 이러한 고통과 불의한 현실 앞에서 세계의 여러 정부나 조직들의 효율성은 제한되며, 오히려 고통과 불의를 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곳곳에서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사건들을 만들기도 했다. 이웃을 돕고, 정부와 보건 기관이 구호를 위해 노력하고, 과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하고 테스트를 위해 애를 쓰고, 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그것이다. 세계는 새로운 연대와 새로운 희망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이 ‘사랑’을 공공의 무대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기후 위기, 빈곤 문제, 건강 이상과 같은 의제들 앞에서는 인간이 하나가 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팬데믹은 이 진실을 명백하게 했다.

6) 세상은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는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현재나,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열릴 2022년 세상이나 모두, 온갖 불의로 가득하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세상은 고통받는 사람으로, 고통받는 피조물로, 고통받는 지구로 훼손된 세상이다.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고 평화를 갈망하는 동안에도 여러 곳에서 - 때에

따라 비극적이게도 종교의 이름으로까지 행해지는 - 끔찍한 전쟁과 폭력이 일어난다. 소수는 잔치를 벌이고 다수는 굶어 죽으며 극심한 불평등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다. 인간이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고 타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일부를 배제하고 억압하는 권력 행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창조 세계 자원이 계속 착취당하고 남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의 고향인 지구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회개와 쇄신이 요구된다.

4.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태도 : 사랑

그러나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받았기에 나 자신의 인간적인 자원에만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일하신다. WCC 신앙과 직제의 문서 중 "공통의 비전을 향하여"의 마지막 장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이자 우선적인 태도는 인류 역사의 소중한 구성원이 된 어린이와 여성, 남성, 실로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태도"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었다. 그 사랑은 또한 예수의 긍휼히 여기는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드러나고, 예수의 고난, 죽음과 부활로 드러났으며, 창조 세계 회복의 약속 안에서 나타났다. 이 사랑으로 예수가 우리를 사랑했고, 이 사랑은 교회와 세상을 위한 선물이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교회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감을 주고 모든 일을 이끌고 창조한다.

총회의 주제에서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열어 두고, 그 사랑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소망한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사랑의 깊이를 항상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겸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세상에 대한 하나님 선교의 새로운 창조물이며 표징이고 종이다. 이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도들이 고백한 믿음에 근거한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세상을 향한 봉사에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의 표징으로 부름 받았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던 사도들의 삶을 계승한다. 이것은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는 사랑이다. 화해의 표징인 교회의 일치는 세상의 변화를 위한 봉사와 항상 동일시되어야 하고 봉사와 연결된다. 세계교회협의회 "세상과 교회"라는 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서고, 그들을 위한 실천 투쟁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고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교회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더욱 깊은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일치 안에서 서로 더 가까워지도록 영감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다. 사랑은 친교를 고무시키고 우리를 서로에게 이끌리게 한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외쳤다 :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눅 13:34).

사랑은, 사상이나 이상보다 사람을 더 모이게 하고, 사람에게 영감을 주며, 사람을 일치로 이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의 표징이며, 교회의 사람들은 복음의 종이므로 그들의 사랑을 담은 태도와 실천을 통해 교회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이 증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열망에 대한 낭만적이고 순진한 개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그의 친구들과 제자들 간의 일치를 위해 기도하였다(요17).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기도했다. 이들의 일치는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그들의 일치를 보고 믿고 하나가 되도록 구했다.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말씀과 사도의 신앙고백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이며 깨어진 세상을 위한 일치의 표징이다.

일치를 위한 기도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기독교의 예배 중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실재를 전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그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하시고, 깨어진 세상이 하나 되는 일치의 표징이 되게 하신다.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모든 차이와 분열의 익숙한 표식들을 무너뜨렸음을 알 수 있다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 3:28)

교회는 사랑이었고, 사랑이며, 사랑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치에 참여하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창조 세계의 종말론적인 일치의 표징이자 스스로를 증으로 내어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는 공통된 열망에 기초한 일종의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고 하나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불일치, 타인에 대한 사랑의 부족,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절실한 상황이 우리를 하나가 되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격 미달인 점이 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직면한 도전이자 약속이며 희망이기도 하다.

교회가 일치를 이룰 때, 세상을 향한 증거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원으

로 일치로 증거 한다. 세상은 이미 교회 안에서 일치로 들어간다. “교회와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회에서 모이고 화해하고 새로워지는 것들은, 결국 “세상”에서 온 것들로,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곳에 있었기에 새로워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있어야 하며 마지막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에 일치를 가져오면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5. 마음을 담은 에큐메니즘

“사랑”이라는 단어가 WCC 총회 주제의 일부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큐메니컬 운동이 머리(이성)와 가슴(감성)으로 이루어지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태도인 사랑 그 자체를 따르며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회의 수많은 사람이 일치를 추구하는 것은 지적, 제도적, 형식적 차원을 넘어 관계와 공동의 기도, 무엇보다 상호 애정과 사랑에 기초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일치를 향한 일은 제자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친구라 부르며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받은 사도들의 신앙고백에 근거해야 한다(요13).

바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요 14:21)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화시키는 제자직에 근거한다.

인간은 일치와 사랑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커뮤니언”(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일치”라는 단어보다 상위에 두고 사용하곤 하는데, 이는 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일치 개념이다. 가장 친밀한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받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면 인간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사랑의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게다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관계를 경험하면서 일치와 사랑이 얼마나 가까운 것인지 알게 한다.

사랑은 우리를 서로에게 이끌리게 하고, 함께 있게 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누게 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며, 고난이 오고 고통이 깊을 때도 서로 옆에 서게 만든다. 사랑과 커뮤니언은 같이 간다. 일치와 사랑은 함께 한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

사랑에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 되게 묶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과 모든 선한 세력들과 더 깊은 관계로 이끈다. 다양한 신앙 전통을 관통하는 주제로서의 사랑은 경계를 초월한 정의 추구하고 봉사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타자”에게도 주의를 기울인다 - 철저한 환대와 연대를 통해 우리는 낯선 자들을 이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 신앙의 언어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세

상을 더더욱 적극적이고 예언자적으로 변화시켜, 내일에도 함께 나눌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게 한다.

다종교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열정적인 헌신에 뿌리를 두고 동시에 폭넓은 대화를 열망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한다. WCC와 교황청의 종교간대화 평의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상처 입은 세계에 봉사하기 : COVID-19 및 그 이후에 대한 성찰과 행동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문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킨다 :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살아난다 ...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과 선교가 살아나고, 그리스도 현존의 사랑의 표징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와 함께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사랑은 감정과 느낌 그 이상이며, 때에 따라 시험을 당하며, 감정의 표현만큼이나 의지와 지성의 표현이다. 사랑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에 대한 것만큼이나 우리의 정치, 행동, 그리고 신중한 생각에 관한 것이다.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고전 13:1~7, 13)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분개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향한 순례에서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이 완전하고 가시적으로 일치하게 되어 그 위대한 날이 올 때 비로소 서로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우리가 사도의 고백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때, 기록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서로 인정할 때, 한 식탁에 모일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의 커뮤니티 현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먼저 커뮤니티를 소망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시작하면서 이론적으로나 추상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고, 가시적이고 사려 깊은 방식으로 교체하고 서로 사랑하면 만인이 볼 때 커뮤니티인 것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을 담은 에큐메니즘일 것이다.

6. 결론

에큐메니컬 운동은 항상 교회들이 가시적 일치와 온전한 친교(Full Communion)를 이루기 위해 서로를 초청하는 일이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직접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진 요즘, 그와 같은 소명이 더욱 필요하다.

교회의 선포는 이제 낙관적이기만 했던 공허한 정치적 수사학이 아니라, 진실한 희망과 공공성을 담은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서 세상을 돌보는 새로운 에큐메니컬 운동을 열어야 한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소비주의로 형성된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 자원이 공유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이 새롭게 발견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은밀한 곳에서,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비밀스러운 공동체 안에서만 기도하며 살아가던 교회는

부활한 그리스도로부터 공공장소와 세상의 열린 곳들로 “보냄”을 받아 정작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반성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축복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파송 명령을 받았다. 진정한 사랑, 공동체성, 정의와 희망을 갈망하는 세상은 요한계시록이 증거하는 것과 같이 가시적인 일치를 나타내며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를 이루고 인류와 모든 피조물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찾아가는 교회를 소망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 제11차 총회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다. 또한, 사랑으로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선언**이기도 하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이다. 교회와 전 세계의 모든 선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화해되어 인류로서 진정한 일치를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